

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증가 추이와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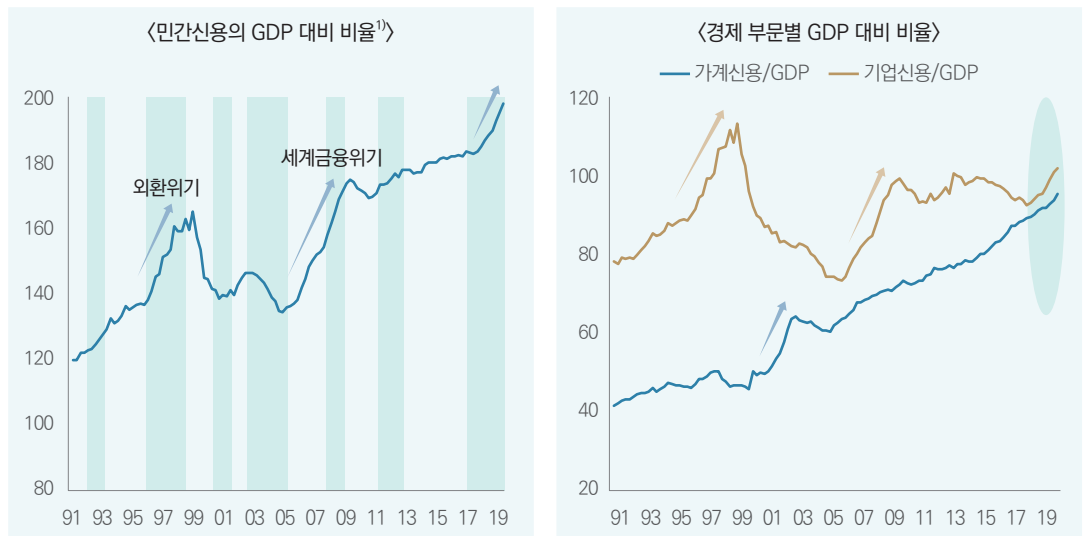
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분석관

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동향

- 국제결제은행(BIS)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(가계신용+기업신용)의 GDP 대비 비율¹⁾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
 - BIS의 주요국 민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신용/GDP 비율은 197.6%로 전년(187.6%) 대비 10.0%p 증가
 - 부문별로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GDP대비 비율이 각각 95.5%와 102.1%로 전년대비 각각 3.6%p, 6.4%p 증가
 - 과거와 비교해 최근의 증가 추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의 증가세 이후 가장 가파른 양상
 -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4/4분기부터 2019년 4/4분기 기간 중 8분기 만에 15.5%p(182.1%→197.6%) 급증

[그림 1] 우리나라의 민간신용/GDP 비율 추이

(단위: %)



주: 분기별 자료임

1) 금융부문은 통계청의 경기순환국면 상의 경기수축기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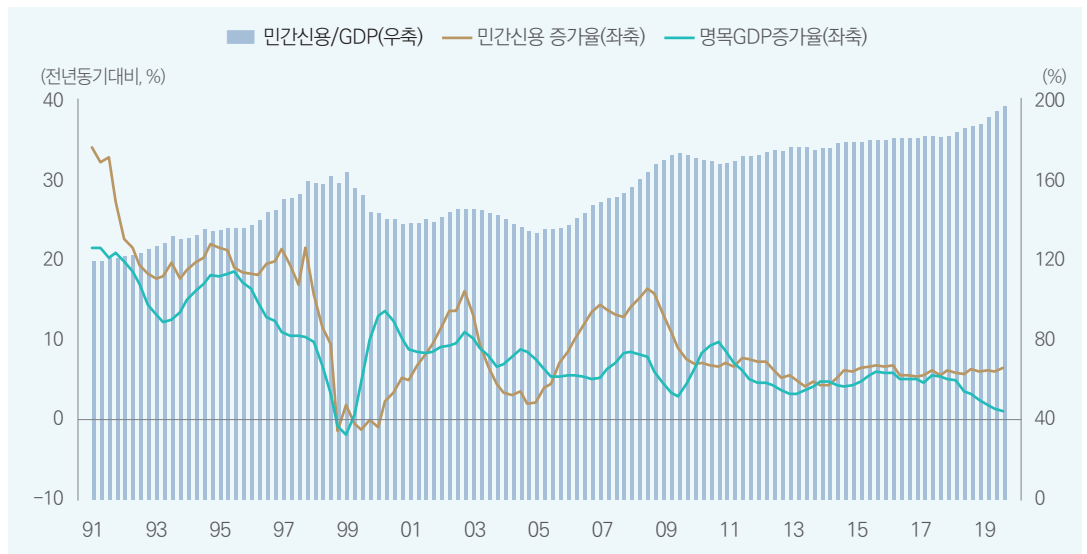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제결제은행(BIS)

1) 민간신용의 수준은 부문별 신용증가율, 채무상환부담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, 여기서는 BIS가 권고한 국제 비교의 공통 참고지표(common reference guide)인 민간신용/명목GDP 비율을 이용함

● 최근의 민간신용/GDP 비율 증가는 기업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

- 2018년 1/4분기 이후 민간신용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6.1%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, 동기간의 명목GDP 성장률은 2018년 1/4분기 3.9%에서 2019년 4/4분기 1.5%로 빠르게 둔화되며 민간신용/GDP 비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
 - 한국은행의 추정(『금융안정보고서』 6. 24일)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1/4분기 민간신용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.6%로 확대된 반면 명목GDP 성장률은 1.0%로 둔화되며 민간신용/GDP 비율이 201.1%로 확대
- 부문별로는 가계신용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기업신용 증가율은 확대되었으나, 올해 들어 가계신용 증가세도 확대 전환되는 양상
 - 가계신용 증가율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/4분기 7.8%에서 2019년 5.0%로 둔화되었으나, 기업신용 증가율은 동기간 4.6%에서 7.9%로 확대
 - 올해 들어 1/4분기 중 가계신용은 주택 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6.5%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,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8.6% 증가²⁾

[그림 2] 민간신용 및 명목GDP 증가율 추이



주: 분기별 자료임
 자료: 국제결제은행(BI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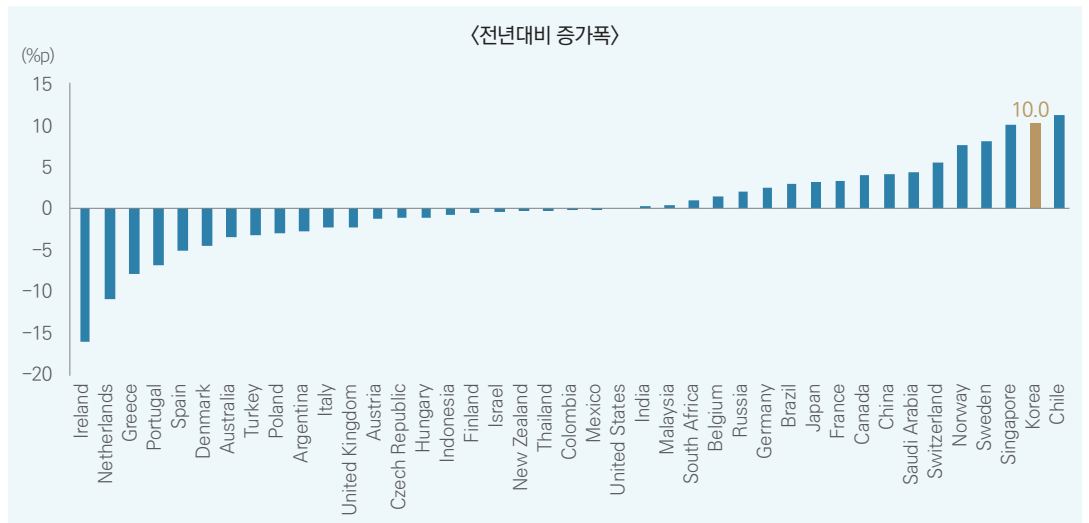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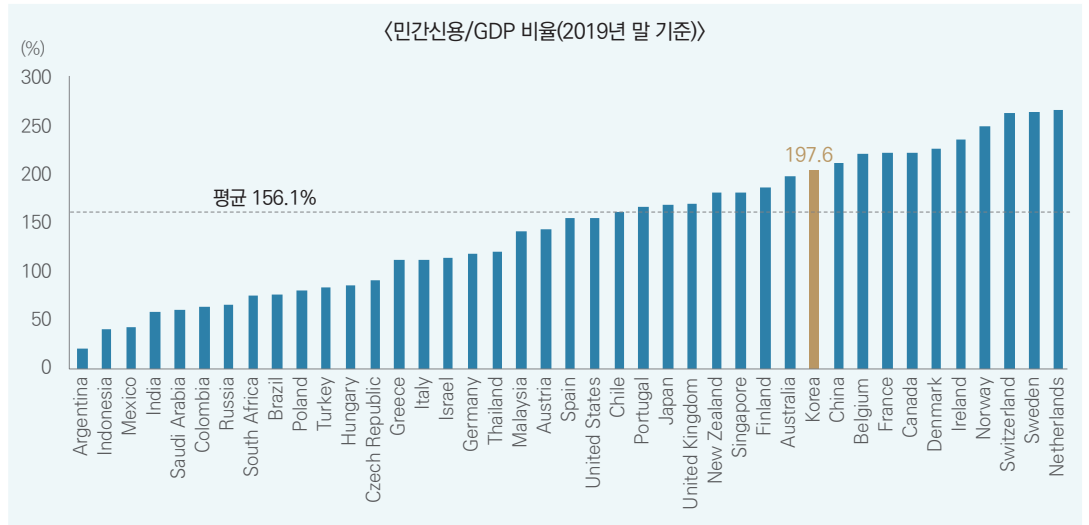
주요국의
 민간신용 비교

● 우리나라의 민간신용/GDP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최근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

-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신용/GDP 비율(197.6%)은 주요 43개국 평균³⁾(156.1%)과 선진국 평균(168.6%)보다 각각 41.5%p, 29.0%p 높은 수준
 - 특히 2018년 말 대비 증가폭을 기준으로 볼 경우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10.0%p 확대되어 비교대상국 중 칠레(11.1%p) 다음으로 가파른 증가세

2) 한국은행, 『금융안정보고서』(2020. 6월), p. 16
 3) BIS에 신용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43개국을 대상으로 함

[그림 3] 주요국의 민간신용/GDP 비율¹⁾ 수준과 전년대비 증가폭²⁾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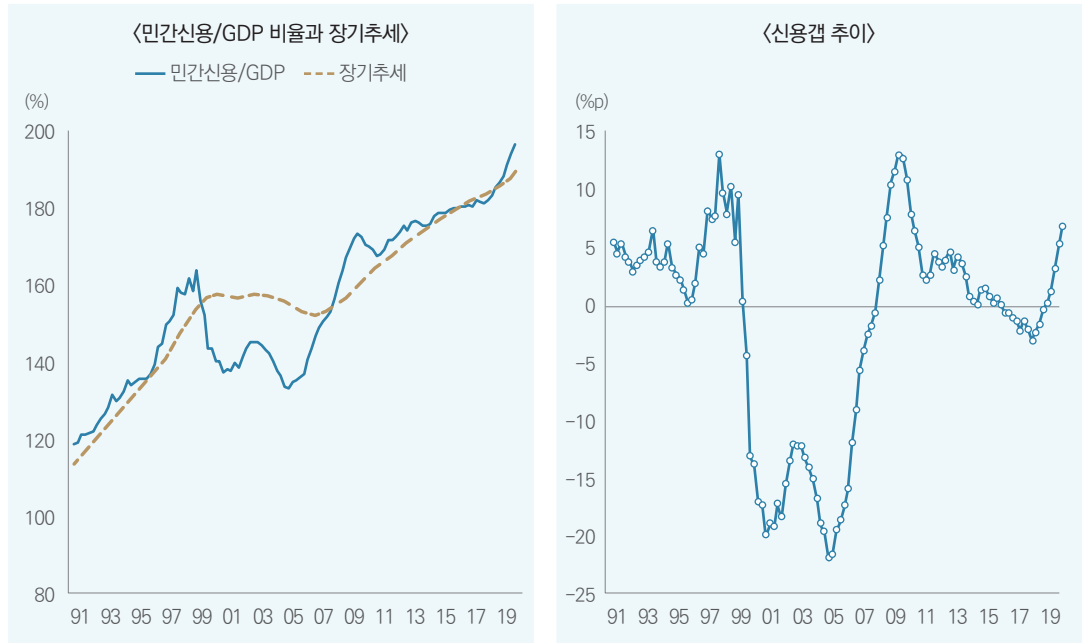
주: 1) 2019년 4/4분기 말 기준
 2) 2018년 4/4분기 말 대비 증가폭
 자료: 국제결제은행(BIS)

우리나라
신용갭 추이

● 민간신용/GDP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위험의 지표로 이용되는 신용갭(Credit-to-GDP gap)도 빠르게 상승하여 '주의' 단계로 진입

- BIS의 신용갭(Credit-to-GDP gap)은 민간신용의 GDP 대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며, 경기 대응적인 완충자본(capital buffer)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음
 - 즉, 신용갭이 커질수록 경기여건이 악화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한 자금조달력이 저하 되어 신용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
 - 신용위험의 지표로 이용되는 신용갭이 2%p 미만이면 '보통' 단계, 2~10%p이면 '주의' 단계, 10%p를 넘어서면 '경보' 단계로 구분
-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2018년 말(0.4%p)보다 6.6%p 상승한 7.0%p로 '주의' 단계에 진입
 -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기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10%p를 상회하였고, 최근의 수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/4분기(6.8%p) 이후 가장 높은 수준

[그림 4] 우리나라 민간신용/GDP 비율의 장기추세¹⁾와 신용갭



주: 분기별 자료임

1) BIS는 민간신용/GDP 비율의 장기추세를 HP필터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음

자료: 국제결제은행(BIS)

시사점

●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간신용의 가파른 확대는 민간의 금융취약성을 증가시켜 향후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

-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저금리가 지속⁴⁾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민간신용/GDP 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
 - 최근의 증가세가 주로 명목GDP 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명목GDP 성장률 하락은 가계의 소득 및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
 - 2020년 중 민간신용/GDP 비율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최근 2년간의 평균 수준(6.1%)을 유지하고 명목GDP 성장률 0.8%(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)를 적용할 경우 208% 수준으로 전년대비 10%p 이상 증가할 전망
- 신용갭이 장기추세를 벗어나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경기여건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의 금융취약성(financial vulnerability)이 커질 위험
 -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경색적인 금융여건이 조성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
-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간신용 확대는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둔화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▶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“NABO 경제·산업 동향&이슈” (제6호) 참조

4)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고채(3년) 금리는 2019년 연평균 1.53%에서 2020년 5월 중 0.88%로 하락